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강화

최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세계 농수축산물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국내 농수축산업 분야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 국내 농업 기반은 물론 축산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다.

그나마 축산업 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는 국내 닭고기산업 분야도, 이미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닭고기 수출국으로 부상,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협요인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육계계열화 사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닭고기의 해외수출 강화는 물론 내부의 구조 개선 및 유사 업종의 통폐합으로 중국의 WTO가입은 물론 뉴 라운드에 대비해왔다.

하림, 마니커 등 대표적인 닭고기 전문회사들이 신선육의 대일수출 강화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면 체리부로식품을 비롯 타 육계계열화 사업체들도 종계, 도계 및 닭고기 가공분야 진출을 적극 시도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인 하림(대표 김홍국)의 경우 육계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료업체 중에서 국내 굴지의 업체인 제일사료와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맺음으로써 기업의 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인 대외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국제적인 추세가 은행 등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자동차회사 등이 횡적인 합병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대외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추세이

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닭고기 회사인 미국의 Tyson 역시 세계 제일의 육류회사인 IBP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축산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전략적인 합병이라는 점에 주목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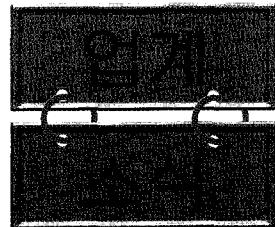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제일사료의 경우도 단독 대응하기보다는 통합경영의 주체인 하림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음으로써 대외경쟁력 강화나 사업기반 구축부분에 있어 양사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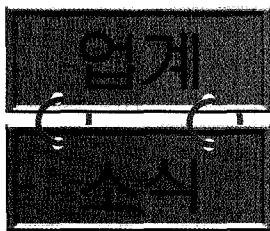
또한 신선육의 대일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주)마니커의 경우도 동두천 제2공장을 비롯 경산가공장, 백암부화장의 증설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체리부로식품도 구미 및 장성도계장 인수에 이어 중원농장(원종계, 종계, 부화)을 인수 함과 동시에 부분육 가공장의 증설, 닭고기 가공제품시장의 진출을 가시화시키고 있으며 성화식품 등도 닭고기 가공제품 소비시장의 진출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있어 대외 및 국내 경쟁력 강화가 더욱 진일보 될 전망이다.

(주)하림(2466△) 2001년 식품안전경영대상 수상

(주)하림은 한국농률협회컨설팅에서 주최한 2001년 식품안전경영대상에 응모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받은 결과 도계장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01년 식품안전경영 대상은 경영, 일반위생, HACCP의 3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300, 350, 350점의 총 1,000점 만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항목은 경영 전략, 품질경영 등 6개의 대항목, 19개의 소항목 39개의 세부항목으로, 일반위생은 공장관리, 위생관리 등 5개의 대항목, 16개의 소항목, 35개의 세부항목으로, HACCP부문은 HACCP본단계, 사후관리 등 3개의 대항목, 13개의 소항목, 30개의 세부항목으로 합계 14개의 대항목, 48개의 소항목, 10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00점이상을 받아야 “최우수상”권에 들수 있으며 이들중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하림은 2000. 9. 14 HACCP인증에 이어 금번 대상을 수상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위생처리와 안전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겸증을 받아 명실공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하림은 소비자의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시상식은 2001. 12. 5. 10:00 서울강남 매릿츠 호텔에서 있으며 이때 개인부문 경영자상에 생산본부장 이선기 부사장과 추진자상에 품질보증실 김재옥 대리가 수상하게 된다.

동우, 플러스푸드 등 본회 회원사 2곳 HACCP적용 도축장으로 지정

본회 통합경영분과위 소속 회원사인 (주)동우(대표 정창영)와 준회원사인 플러스푸드가 지난 11월

11일자로 HACCP 적용 도축장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HACCP적용 도계장은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마니커 닭고기 일본시장서 큰 호응 수출용 육계공급라인 확보에 주력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이 일본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마니커(대표 한형석)에 따르면 일본4대 종합상사중의 하나인 낫쇼이와이와 국내산 닭고기 장기 수출계약에 합의, 지난 10월 중순경에 시범 수출한 닭고기가 현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추가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연간 55만톤 규모의 닭고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신선육 부분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나 품질상의 이유로 바이어들이 한국산 닭고기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산 신선계육의 해외 수출은 그간 몇번의 시험 판매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 중국산과의 가격 차별화로 국내산 닭고기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에 알릴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마니커는 일본 낫쇼이와이 측에서는 닭고기의 대량 수입을 원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우선 11월초부터 연말까지만 매주 10톤씩 총 100톤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용 육계 공급라인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